소식지 제5호

2011년12월1일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쥰

양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방사능오염 그 안에서

2011년3月11日、동일본을 습격한 거대한 쓰나미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고,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어 우리들이 더 두려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부터 8 개월이 지나, 퍼진 방사능 물질은 바람을 타고 각 지역에 내려 앉았고, 우리들의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느님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걷길 바랍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웃음이 피해지에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매일 2 회방사선량측정





성 바으로 유치원 (고리야마시) 원장 키쿠치 아쯔코

3月11日。 갑자기 덥친 상상 밖의 지진과 그후 원발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재해 영향에서 . 7 개월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시간만이 흘렸고,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방사능을 낮춰 원아가 안심하고 통원하게 하기위해, 선생님들이 제염활동에 힘을 들여 방사선의 제거에 힘쓰며 곤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아 가족 가운데는 아버지 혼자 고리야마에 남고, 엄마와 어린이들이 현 밖으로 피난해, 가족이 각가가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각오를 결정. 자주 피난을 하지 않고 고리야마에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유아교육 종사자로서 같이 고생을 견디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소리가 지역에 들려 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리야마성베드로성바우로교회、 성 바우로 유치원 분투기』 동경교구 성마르틴 교회 신도 오카즈미 타케오

아침, 유치원 제염 활동을 하고 있으면 원아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옵니다. 재해 이래 바깥 놀이가 없는 아이들은 창너머서, 내 행동과 고압세정기로부터 뿜어 나오는 물을 불가사의 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방사선은 보이지 않고,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두려운 물질입니다.

나는 고리야마 사제의 도움으로 사제관에 머물며 매일 아침과 저녁 1 일 2 회 유치원, 교회의 제염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제 부부의 애정을 느껴, 방사선의 두려움보다,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즐거움에 충만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리야마에서의 제염작업은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모습도, 형태도 없는 악마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린이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강하게 뿜어 나오는 물에 기도를 더해 힘껏 제염을 해나가는 기도의 날들입니다.

미소노유치원 (후쿠시마) 원장 호소야 미노루

3月11日、본원은 창립기념일로 휴원이였기 때문에 원아 전원이 유치원에서 두려운 생각을 하는 것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37 년의 원 건물도 무사한 모습으로 단단한 "미소노"의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에 의해 살았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큰 시련과 수고로, 본 원은 대처하는 것이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불안 속에서 시작한 올해 이지만, 1,2 학기에 예정 되었던 대부분의 행사를 원아들의 웃음과 함께 어떻게 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측정기의 스위치를 넣어 0.01 이라도 방사선량이 낮아졌기를 기도하는 기분으로 원 건물 7 개소의 선량을 모니터링하는 매일 , 이러한 매일이 빨리 없어지길. 보호자와 함께 원아들을 위해 착실하게 원 건물 내외의 제염활동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되살아난 유치원과

입장의 분들과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______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사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후쿠 시마

의 소리

후쿠시마 성 스테파노 교회 신도 오카다 카즈히토

후쿠시마 현민들은 지금, 대단히 방사능에 정통해 졌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도, 다른 현의 사람과 비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나라와 동경전력의 대응은, 우리들이 보아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염 작업이 발표 되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전혀 결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흙 제거를 하고 싶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방사능에 쌓여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현을 벗어나면 그다지 방사능의 현상을 TV 와 라디오에서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에서는 그 사고로부터 시간은 멈췄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으로부터 방사능이 없어질때 까지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후쿠시마의 현상을 잊지 말아 주세요.

프로젝트에서의 활동

- ◆후쿠시마 성스테파노교회와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스테파노 교회의 제염 (프로젝트가 업자 부담제공)
- ◆상주제염 봉사자와 임시봉사자 고리야마 파견
- ◆연수회개최 (제 1 회는 2011 년 10 월 20 일(木)센다이 오피스 회의실에서 열려, 약 50 명 참가) 【주제】「방사능 오염과 우리들의 생활」~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배우다~

【강사】 카와다 마사하루 씨

체르노빌 구원·중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피해자를 구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국제협력과 인권옹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NPO 법인) 의 이사, 20년 이상, 체르노빌 원발 사고에 의한 피해조사와 구원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분.

【강의내용】

- 1. 후쿠시마 원발사고와 체르노빌 원발사고의 비교(방출된 세슘량애 의한 비교)
- 2.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 3. 방사선에 관한 각종 단위
- 4. 지금 필요한 것
- 5. 토양오염과 그 대책
- 6. 피폭대책

- <이후 활동계획>
- ◆제염작업 (봉사자 파견 등)
- ◆밖에서 놀자! 프로그램(후쿠시마 어린이 단기 소개)

프로젝트 사무국에서

10월의 활동(센다이 베이스)

■나토리시 가설주택

나토리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요청에 의해 매주 목요일 장보기 버스를 2 곳으로 늘렸습니다. 오전에는 하코즈카 사쿠라단지, 오후에는 새로운 가설주택을 대상으로

■게센누마지구

하고 있습니다.

주초,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를 베이스로 게센누마 지구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쿠키 판매 지원을 하는 「히마와리」에 통근 작업자의 지원,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근 작업자의 다수는 가설주택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장소가 많고, 관청, 통원을 위한 송영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

미나미산리쿠 시즈가와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의 일본어 교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월부터 산코복지 대학이라는 홈헬퍼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협력하여 시즈가와에서 출장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 정도까지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에 관해서도 후보를 정해가고 있습니다.

알림

■봉사자 모집 알림

각 베이스에서의 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마이시 베이스, 오나하마 베이스에서는 연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 직접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게재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URL: http://www.nskk.org/walk/index.html]

■소식지에 관해

사무국에서는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프로젝트의 활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을 사용해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 부에 약 7 엔 정도 들어가지만,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u>「함께걷자!프로젝트」 수지보고</u>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3月11日 대재해, 큰 쓰나미, 그리고 계속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부터 8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광범위함, 피해 입은 분들의 방대함, 현재도 계속되는 방사능의 영향 등. 지금도 두려움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걷자!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쪽에 있는 모금접수 상황과 사용에 대해 9월말 현재 수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모금총액 173, 479, 806 엔

내역 국내모금 87, 285, 506 엔 해외모금 85, 827, 215 엔

기타 367,085 엔 (숙박감사 등)

지출내역 134.121.011 엔

내역 피해교구구원비 4,134,040 엔 (피해교구에 긴급구원비)

피해건물수선비 86,421,373 엔 (각교구교회、유치원등의 긴급수선비)

대책본부비 4,946,657 엔 (긴급물자구입、운송、회의비등)

각교구대책실지원비 6,486,450 엔 (각교구설립청산분)

센다이오피스비 21,831,973 엔 (사무소비, 스텝주거비, 지원물자구입비,

인건비, 교통비, 차량비, 광고비등)

현금가불 27,041 엔 (오피스현금)

가마이시 베이스 5,617,306 엔 (사무소임대료, 사무소 수선비, 비품등)

오나하마 베이스 2,700,008 엔 (활동비등) 신지베이스 673,512 엔 (활동비)

외국인지원프로그램 809,757 엔 (시즈가와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장애자지원 프로그램 472,894 엔 (쿠키, 마유다마 구입 등)

수지잔액 39, 358, 795 엔

9 월말 현재까지는 주로 긴급지원 물자 구입, 운반, 각 베이스 설치 비용(임대료, 수선비, 비품등) 피해 건물 수선비용 등에 시용되었습니다. 이후는 전임 스텝 인건비등의 지출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활동이 긴급지원으로부터 생활재건, 방사선 피해자지원등,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동아리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도, 피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年11月

일본성공회「함께걷자!프로젝트」운영위원회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혂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022-265-5221 FAX:022-748-5321

E-mail:walk@nskk.org URL:http://www.nskk.org/walk/